

■ 여야 재보선 '대전표' 윤곽... '미니 총선' 변수는

수도권 2곳이 향후 정국 승부처

수원 장안, 경기 안산·상록을 당력 결집 한나라 '텃밭' 경남 양산 결과도 주목

전국 5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10·28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는 이번 재보선이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더불어 향후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일단 여야는 수도권 선거 결과가 전체 재보선 성적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당력을 결집하고 있다.

경기 수원 장안의 경우 한나라당은 박찬숙 전 의원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손학규 전 대표의 측근인 이찬열 지역위원장을, 민주노동당은 안동섭 경기도당위원장을 각각 공천했다.

민주당은 경기지사로서 지낸 손 전 대표의 '후광 효과'와 함께 이 위원장을 지역 일꾼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찬숙 전 의원의 인지도가 높은 만큼 승리를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승부처가 될 경기 안산·상록을에서 한나라당은 송진섭 전 안산시장을 후보로 확정했고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김영환 전 의원을 공천했다.

승부의 관건은 진보진영 대표로 나선 무소속 임종인 전 의원과 민주당 김영환 후보와의 단일화로, 성사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남 양산의 경우 한나라당은 박희태 전 대표를, 민주당은 친노 386 인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을 각각 공천했다.

이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공천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김양수 전 의원

과 유재명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무소속으로 나서는데 것이 최대 변수다.

경남이 한나라당의 '텃밭'이나 김, 유 후보의 출마로 여론 표가 갈리고 민주당이 민주진영의 통합을 내세워 친노 세력을 결집하면 한나라당도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강원 강릉의 경우 한나라당은 권성동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민주당은 강릉지역위원장인 홍준일 전 청와대 행정관을 각각 공천했다.

낙천한 진박(진박근혜)계 실세였던 권 의원이 권 후보 지원 의사를 밝힌 데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준 전 의원이 불출

마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단 한나라당이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뒤늦게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구에 민주당은 음성 출신인 정범구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다.

자유선진당은 신동의 지역 당협위원장, 송석우 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한나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공천 신청자 6명을 대상으로 여의도연구소와 외부 여론기관 2곳을 통한 적합도 조사를 벌여 공천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재보선 결과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의 입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향후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각 당이 총력전을 펼치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선(광주 동구·사진 왼쪽)·추승용 의원(여수·오른쪽)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재래시장,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찾아 민심을 듣는 등 귀향 활동을 벌였다.

“경기 풀린다는데 우린 언제쯤...”

■ 지역 국회의원들 추석 민심 들어보니

추석 연휴 지역민들을 만나본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중도·친서민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어려움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서민 생활이 날로 압박해지고 있다는 향후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각 당이 총력전을 펼치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은 “정부에서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재래시장이나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갈수록 차갑기만 했다”며 “서울은 몰라도 지방경기는 갈수록 좋지 않고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것 같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도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가 들어온 이후 수요가 급감했다고 울상을 짓고 있었으며 택시기사들은 자가용 증가, 지하철 확충 등으로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택시 수는 늘어 열심히 일해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벌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성곤 의원(여수갑)은 “지방 상

인들은 하나같이 작년 추석보다 경기가 더 좋지 않고 손님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으며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가 안 되는 것에 우려했다”고, 박지원 의원(목포)은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서민 생활이 날로 압박해지고 있으니 정치를 잘해서 서민들을 살게 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우윤근 의원(광양)은 “재래시장 상인 마다 국회가 싸움만 하지 말고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각각 전했다.

민주당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도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대어투쟁을 하고 있으며 여론통합에도 소극적이며서 이러저러는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어렵겠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재보선 성적표 따라 리더십·복당 영향 정세균-손학규-정동영 삼각함수 관심

추석 연휴가 지나고 10·28 재보선을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선거 결과가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무소속 정동영 의원 등 야권 '빅3'의 앞날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정 대표의 경우 이번 선거 결과와 그의 향후 거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충청에서 승리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린다면 당내 입지가 한층 굳건해지겠지만 이른바 '5대0' 전패 등 명백한 패배를 기록할 땐 당내에 조기 전대론이 확산하면서 리더십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수원 선대위원장을 맡은 손 전 대표의 입장에서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수원에서 승리하면, 당내 입지가 강화되면서 정치 복귀가 수월해진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출마하지는 않았

음에도 수원에서 패하면 정 대표나 정 의원 쪽으로부터 당의 출마 요청을 거절할 데 따른 책임 추궁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

무소속 정 의원은 당 밖에 있지만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입지에 변화가 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정 대표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크지만, 패배로 정 대표의 영향력이 떨어지면 정 의원은 비주류의 지위를 등에 업고 자연스럽게 복당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 관계자는 4일 “이번 재보선 결과는 3명의 정치거물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지만 완벽한 승리나 완전한 패배가 나오기는 어려워져 상황이 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광태 시장 中企·복지시설 돌며 친서민 행보 가속

박광태 광주시장이 재래시장, 사회복지 시설 등 민생현장을 꼼꼼히 챙기는 등 친서민 행보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4일 광주시에 따르면 박광태 시장은 추석연휴 첫날인 지난 1일 하남산단에서 금형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에이텍 스텔렌우를 방문, 휴일을 반납하고 조업 중인 근로자들을 위로했다.

박 시장은 회사 임원,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건의사항을 들은 뒤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남구 주월동 '효사랑 주월의집'과 북구 지아동 '예수마리아 요셉부활의 집' 등을 잇따라 방문한 뒤 시청 관련 부서에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광주시 북구 화북동 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직접 물품을 구입하고 상인들을 위로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용산사태 해결 최선 다할 것”

정 총리, 참사현장 방문 유가족과 대화

정운찬 국무총리가 추석인 지난 3일 용산 철거민 참사 현장을 직접 방문, 유가족들을 만나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9시에 주호영 특임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 유가족들과 30여 분간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정 총리는 먼저 희생자들의 영정에 조문한 후 유가족들과 함께 바다에 맞

아 “감정이 북받쳐서 잊지않고 드릴 말씀을 몇 자 적었다”며 A4용지를 꺼내 차분한 어조를 읽어 나갔다.

그는 우선 “제 마음 같아서 총리로 취임한 그날이라도 이곳에 오고 싶었으나 여러 불가피한 일정이 있어 이제야 밟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이어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여러분의 심정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는 대목을 읽으면서 목소리가 떨렸고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정 총리는 “이 문제가 이른 시일 안에 원만한 해결돼 어려운 모두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끝낸 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희생자 유가족들의 발언을 경청했다.

유가족들은 고인들의 명회회복과 사인 규명, 수사기록 공개, 대정부 대화 창구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서민들이 남겨져도 떨어져 지 않도록 총리께서 도와달라”고 눈물을 쏟아냈다.

정 총리는 “수사기록 공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유가족과 정부간 대화의 통로를 정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 www.hanbitgosi.co.kr

2010년 신바람 나는 공무원 합격준비는 지금부터 한빛에서

7·9월 공무원 합격의 힘!

소방지정시험의 소용극단

소방체력증기 무료체험

한빛소방지정전문학원

7·9월 종합반 하루9시간 강의

기능직특재 찍어주기 "하루특강"

한빛고시학원

일야간반

첫개강 > 10월 5일

강의시간 19:00 ~ 22:30

기초부터 심화이론 체계적인 학습단계

합격 논스틀강좌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방암동 234-3234